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	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
		배포일시	2019. 8. 26.(월)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	공공주택지원과	담 당 자	과장 최아름, 사무관 박선영, 주무관 전성이 ☎ (044) 201-4530, 4531, 4528	
보 도 일 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다가구매입임대주택은 '04년 도입후, 매년 정상 입주중입니다.

- 현재까지 누적 117,533호 매입, 장기 공실은 3% 미만 -

□ 다가구매입임대 사업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주택을 매입하여 개·보수 후 저소득계층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,

○ 매입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임차계약 종료 이후에 쾌적하게 새단장하여(기존 주택 매입-실제 입주간 시차 존재)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.

○ 매입 즉시 입주가 어려운 사업특성으로 인해 2018년 말 기준 당해년도 매입주택의 약 50%(8,182호)가 기존 임차계약 또는 보수 등 공급 준비 중이었으나, 금년에 공급 준비를 마친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하고 있습니다.

* '18년 다가구매입임대 매입물량 총 1만 6,772호

- 12월 결산 기준, 8,182호 보수 또는 기존 임차인 거주 중(50%), 4,893호 입주자 선정·계약중(30%), 2,518호 입주 완료(15%) 등

□ 다가구매입임대 주택은 누적재고 기준 6개월 초과 공실*에 대하여 장기 미임대율로 관리하고 있으며, 2018년 말에는 2.8% 수준(누적 재고 117,533호, 장기미임대 3,340호)이었습니다.

* 입주자 모집 공고 이후, 입주자 선호에 맞는 주택 매칭, 입주자에 대한 자산요건 검증, 계약 등에 약 4개월 이상 소요

- 국토교통부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양질의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을 지속 확보하는 동시에, 매입후 입주까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민간매입약정제*를 도입하여 매입 즉시 입주 가능한 신축 주택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으며,

* 민간 재건축(신축) 주택을 매입약정하여 준공 이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·공급

- 입주 신청자의 소득·자산 등 입주자격 검증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.

- 또한, 장기 공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혼부부의 선호를 고려한 투룸 이상 규모의 주택, 생활가전이 갖춰진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등 입주자 눈높이에 맞는 주택을 확보·공급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8.26. 서울경제) >

◆ 2조 투입하고도...

- 다가구매입임대 1조 8,833억원 투입해서 1만 6,772가구 사들였지만 입주율은 15%로 저조, 매입한 주택 중 공가 비율은 36.2%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박선영 사무관(☎ 044-201-453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